

북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성공”

“7580초 비행 1500km 표적 명중” 순항미사일로 저장도 무력시위 군 당국 “한미 공조 정밀분석중”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참관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13일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7580초는 126분으로 두 시간 넘게 순항미사일이 비행한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하여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4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당일 즉각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던 군 당국이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아 미사일 발사의 사전 타지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며 “무기체계 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돼온 이 무기 체계의 개발은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밝힌 사거리 1500km는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3C의 사거리와 비슷하다.

이번 시험발사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비서의 참관 하에 시행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저장도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로켓의 추진력으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 속도와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이용하여 수평 궤도로 날아간다.

순항미사일은 정밀 타격은 용이하지만,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다. 또 탄도미사일은 탄두부의 무게가 무거워 핵탄두 등을 실을 수 있지만,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를 통해 탄두 무게를 줄여야 한다.

북한이 밝힌 사거리 1500km는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3C의 사거리와 비슷하다.

앞서 북한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시진핑·푸틴 겨냥 “민주주의 작동 안한다 믿는 독재자 많아”

아프간 철군 결정 재차 옹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미국식 민주주의의 작동 가능성을 부정하는 독재자처럼 묘사했다.

백악관이 언론에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당시 납치된 비행기가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샌크스빌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주석과 90분간 통화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대면 정상회담을 한 사실을 상기했다. 그는 이어 “21세기에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고 진정으로 믿는 독재자가 많이 있다”며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세계가 너무 빨리 변하고 국민이 너무 분열돼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합의를 얻기 위해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이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들이

독재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며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우리는 이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하며 20년 된 아프간전을 종식한 데 대해 테러를 벌인 알카에다를 격퇴하고 수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후 미군이 철수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바이든은 미군 철수 작전 도중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다시 장악하고 곧이어 미국인 대피에 큰 혼란이 빚어지는 바람에 공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지만 자신의 철군 결정이 옳았다고 재차 주장한 것이다.

그는 미국인의 70%는 아프간에서 떠날 때라고 생각하며 철군을 옹호하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빠져나온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빠져나올지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일은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9·11 테러 20주년 ‘애도의 빛’ 9·11 테러 20주년을 맞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옛 세계 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푸른색 ‘애도의 빛’ 광선 두 줄기가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머스크의 스페이스X, ‘90분에 지구 한바퀴’ 사흘 우주관광 도전

미국 시간 15일 발사

역만장자 등 민간인 4명 탑승

우주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역만장자들의 경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이번 주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스페이스X는 오는 15일(현지시간)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사흘 동안 지구 궤도를 도는 ‘인스퍼레이션 4’ 우주 비행에 착수한다고 로이터 통신과 ABC 방송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이번 우주관광은 지난 7월 성공한 역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리처드 브랜슨의 우주 여행과는 급이 다르다. 베이조스와 브랜슨의 우주 관광은 불과 몇 분 동안 중력이 거의 없는 ‘극미 중력’(microgravity) 상태를 체험하는

저궤도 비행이었다. 브랜슨은 자신이 창업한 우주 기업 버진 갤럭틱 비행선을 타고 86km 상공까지 날아갔다가, 베이조스 역시 자신이 세운 우주 기업 블루오리진 로켓에 탑승해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돌파한 뒤 지구로 각각 귀환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목표 고도를 575km로 설정했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과 허블 우주 망원경 궤도보다 높은 우주 공간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스페이스X 우주선 ‘크루 드래곤’은 음속 22배인 시속 2만7359km 속도로 사흘 동안 지구 주위를 궤도 비행한다. 이는 1시간 3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이다.

이 우주선의 민간인 탑승객 중 한 명은 베이조스나 브랜슨과 마찬가지로 역만장자다. 미국 신용카드 결제 처리업체 ‘시프트4 페이먼트’ 창업주 제러드 아이작먼(38)은 스페이스X에 거액을 내고 크루 드래곤 네 좌석을 통째로 샀다. 아

이작먼이 이번 우주여행에 지불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의 민간인 탑승객은 세인트 주드 아동 연구 병원의 전문 간호사 헤일리 아르세노(29), 애리조나 전문대학 과학 강사 시안 프투터(51), 록히드 마틴사의 데이터 기술자 크리스 쉘브로스키(41)다.

아르세노는 열 살 때 골절상을 앓아 다리를 잃었으나 의족을 하고 간호사의 꿈을 이룬 인물이다. 프투터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모집에 세 차례나 지원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쉘브로스키는 미국 공군 출신의 아라크전 참전용사다.

스페이스X는 15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8시 이전에 이들을 태운 우주선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

사흘 궤도 비행을 마친 우주선은 플로리다주 인근 대서양에 착수(着水)하는 방식으로 지구로 귀환한다. /연합뉴스

공화당 지지층 63% “트럼프 지도자로 원해”

대선 재출마는 51% 대 49% 팽팽

미국 공화당 지지층의 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을 이끌길 바라지만 대선 재도전을 두고선 의견이 팽팽히 갈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CNN방송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성인 211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당 성향 무당파의 6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37%)을 압도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 긍정 답변율은 71%였

고, 공화당 성향 무당파에서는 51%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다음 대선 때 후보가 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하다고 보느냐는 문항에서 51%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49%는 다른 후보가 지명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9년 조사 때 공화당 지지층의 4분의 3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되는 것이 더 낫다고 한 것과는 매우 다른 지형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CNN은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가 당의 지도자로 남길 바란다”면서도 “그가 백악관 탈환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